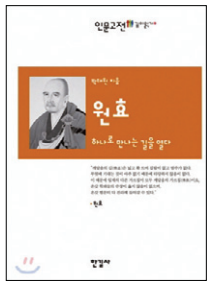


# 10가지 화두 푼 원효 스님의 불교 철학



**원효**  
박태원 지음  
한길사 펴냄  
1만7천원

원효 스님은 동아시아 권역을 통틀어 가장 방대한 양의 저술을 남겼다. 흔히 100부 240권의 저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소 80여 부, 200여 권을 저술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원효의 저술 가운데 현존하는 것은 20종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온존하는 것은 13종 뿐이다. 원효의 방대한 저술은 그의 사

탐구하면서 다양하고 다층적인 불교 이론들을 '한 맛'으로 꿰어낸 원효의 저술은 방대하며 통섭적이다.

시대를 이끈 사상가의 핵심사상과 저작을 10가지 주제로 살펴보는 '인문고전 깊이읽기' 시리즈 가운데 열 번째로 출간된 <원효-하나로 만나는 길을 열다>는 시리즈 최초로 한국의 인물과 사상을 다룬다. 저자인 울산대 박태원 교수는 원효 연구자로서 2011년 '간화선 화두간행론과 화두 의식의 의미'로 대한 불교진흥원이 제정한 제2회 원효학술상을 받았다. 박 교수는 이 책에서 원효 사상을 열 가지 화두로 풀어 원효의 불교 철학과 인간 존재에 관한 성찰을 담아냈다. 일상 사상, 불각과 본각, 시각, 일리, 정론과 화평, 선, 중생 구제 등 원효가 설교한 핵심 사상을 원효의 삶과 배치시켜 설명한다. 이중 깨달음에 대한 내용을 보자. 원효는 의상과 함께 당나라 유학 길에 올랐다 무덤에서 밤을 보낸 것을 계기로 깨달음을 얻는다.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깨달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체득한 원효는 이후 불교의 깨달음 사상을 언어와 몸으로 밝히는 일에 몰두했다. 그가 깨달음 사상을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대승기신론>과 <금강삼매경> 해설에 역량을 집중한 것은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원효의 핵심 사상은 '하나가 된 마음'이다. 불교에서는 삶의 근원적 불안과 고통은 무지로 인해 '존재 고향'에서 일

탈했기 때문에 본다. 존재 고향은 존재나 현상의 사실 그대로의 참모습이다. 따라서 삶의 근원적 평안을 회복하려면 존재 고향으로 복귀해야 한다. 원효는 그 생명의 고향을 '하나가 된 마음'이라고 부른다.

원효는 일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대승의 진리에는 오직 '하나가 된 마음'이 있을 뿐이며, '하나가 된 마음' 이외에 다른 진리는 없다. 단지 무명이 '하나가 된 마음'을 미혹시켜 파도를 일으키어 온갖 세상에 흘러다니게 한다. 하지만 윤회하는 세상의 파도를 일으킬지라도 '하나가 된 마음'의 바다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대승기신론소중에서)

## 저자 박태원...원효학술상 수상 원효 핵심은 '하나가 된 마음'

이 책 부록에는 더 읽어야 할 문헌, 용어 해설, 묻고 답하기, 증언록 등을 넣어 독자들이 그 사상가의 행적과 세간의 평가, 인간적인 면모를 알 수 있도록 했다. 텍스트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 사상가가 맞닥뜨린 현실과 삶의 궤적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원효>편에서는 "파계한 원효를 과연 승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중



원효 스님 진영.

심으로 '묻고 답하기'를 진행했다. 파계 후 스스로 소성거사라 불렀다는 원효는 일반적인 승려와는 다른 길을 걸었다. 이에 대해 박태원 교수는 다음과 같은 답을 내놓는다.

"원효는 애초에 구도의 가장 이상적 방식으로 권장되는 출가수행의 길을 택지 못한 현세인들에게 하나의 길잡이가 되려 했다. 그렇다고 구도의 열정과 의

지마저 퇴색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거사가 되었지만, 가사와 생업에 몰두하는 세속의 삶을 선택할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승려도 아니고 속인도 아닌 삶, 승려일 수도 있고 세속적일 수도 있는 경계인의 삶을 선택했다. 거사라고 하는 비승비속적 삶의 방식을 선택하여 치열하게 가꾸어갔던 것이다."

스스로 파계했기 때문에 승려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속인으로 온전히 돌아간 것도 아니었다. 원효는 거사가 된 이후에도 치열하게 연구하고 수행했다. 그에게 요석 공석과의 인연은 구도자로서 현실을 경험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수 있다는 것

## 파계후에도 치열히 연구 수행 부록에 용어해설 등 수록

이다. 즉 혼인 여부를 따지며 구도자로서의 그의 삶을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다. '인문고전 깊이읽기' (원효)는 당대 최고의 사상가인 원효의 삶과 사상, 그리고 깨달음을 우리들에게 전한다. 원효가 갈구한 '하나가 된 마음'은 각박한 세상에서 돌아갈 곳을 찾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하나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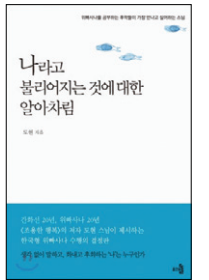
## 원효...100부 240권 저서 남겨 현존하는 책은 20종에 그쳐

상의 넓이와 깊이를 방증한다. 특히 <대승기신론소> <대승기신론별기> <금강삼매경론> <열반경중요> <보살계본지법요기> 등은 원효 사상의 핵심으로 돋보인다. 이런 저술은 양과 질에서 당대 동아시아 권역에서 단연 최고였다. 또한 원효는 경/율/논 삼장파 대승, 소승 경전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정 분야나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널리

## 실천 가능한 위빠사나 수행 정리

### 나라고 불리어지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

도현 지음 | 용진 펴냄 | 1만2천원



위빠사나나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30년이 되었다. 그동안 위빠사나에 대한 책들은 많이 있었지만 학문적으로 깊이 들어가거나 소개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책은 저자의 수행 경험과 그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국불교 간화선의 장단점과 위빠사나의 장단점을 흡수하여 우리나라의 수행풍토에 맞게 재창조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는 저자가 간화선과 위빠사나 수행 모두

를 철저히 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저자는 위빠사나 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대승적 관점에서 위빠사나를 풀어 설명하고, 간화선과 위빠사나를 접목시키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저자는 간화선만 해나갈 수도 있고 위빠사나만 해나갈 수도 있고 간화선과 위빠사나를 절충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고 얘기한다. 마치 고요나무에 열매가 큰 감나무를 접붙이기 하듯이 대승불교(간화선)에 초기불교(위빠사나)를 접목하면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사마타를 해 들어가는 데에는 위빠사나보다는 간화선이 더 강하다고 얘기한다. 간화선은 분석적이지 않고 화두 하나로 들어가기에 더 집중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간화선을 하다 보면 안

정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 때 호흡으로 둘러싸 '들숨도 무상' '날숨도 무상' 하다고 바로 무상관찰로 들어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간화선과 위빠사나는 어떤 점에서 다를까. 저자에 따르면, 부처님이 인생에 대해 고뇌하고 생각하던 그것을 순서를 밟지 않고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간화선이라면, 위빠사나는 구체적으로 따져가면서 하나하나 밟아간 것이라고 한다. 간화선에도 이상과 현실이 같이 있지만 이상이 조금 두드러지고, 위빠사나는 현실 지시적인 점을 차이로 둔다.

이 책은 부처님께서 제시한 호흡수행에 관한 것이지만 광범위한 위빠사나의 수행법 중에서 저자가 체험하고 수행한 방식을 정리하여 꼭 필요한 것들만 모아 만든 테크닉 중심의 책이다. 저자는 이론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초보자도 수행에 집중하도록 간략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김주일 기자

## 신홍사 역사, 문화재 등 소개

### 설악산 신홍사

오경후 · 지미령 지음 | 활불교문화단 펴냄 | 1만8천원



제 3 교구 분사인 속초 설악산 '신홍사' 하면 수행여행으로 유명한 흥들바위나 울산바위만 생각할지 모르다. 그러나 작금의 신홍사는 '향성선원'을 복원해 수행하는 불교의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 또한 만해사상을 이어받아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사찰로 거듭나고 있다. 백담사 입구에 설립된 '만해마을'은 해마다 '만해축전'을 열어 만해의 정신을 전하

며 한국불교 세계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신홍사에는 반가운 소식이 날아 들었다. 명부전 지장보살상존불이 보물 1749호로 격상된 것이다. 얽어진 줄 알았던 극락보전 후불탱 '석가여래설법도'가 LA박물관서 발견되고 이미터여래상존불이 보물 제 1721호로 지정된 후 연이은 낭보다. 기억에서 사라지고 잃어버렸던 보물들이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번 한국의 명찰 시리즈 <신홍사>에서는 모두가 궁금해 하던 LA박물관의 극락보전 후불탱 '석가여래설법도'를 해사상을 이어받아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사찰로 거듭나고 있다. 백담사 입구에 설립된 '만해마을'은 해마다 '만해축전'을 열어 만해의 정신을 전하

김주일 기자

# 아름다운등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 합니다.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 흥은사

윤장대 인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영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98원/1kwh

어색한등기

펜트(케이블)등기

주름등

윤장대등기

영가등

극락왕생등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모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빛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